

128. 필라델피아는 내가 휴거를 약속한 유일한 교회야... 그러니 금으로 쌓아라.

2015.09.09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하트드웰러스 여러분, 주님은 진정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돌보세요. 주님은 정말 여러분과 나눌 아름다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확인시켜주시는 메시지요. 제가 꽤 오랫동안 찬양을 드릴 때 저는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한 찬양을 하였어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찬양을 멈추는 것이 재미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받아 적을 시간이야.

(클레어) 그래서 주님이 메시지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그들이 나의 말들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도와줄 수 없고, 그것은 너도 마찬가지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들 자신의 일정에 맞추기로 결심했어. 왜냐하면 내가 사람의 가치가 있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클레어) 여기서 주님은 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있었던 작은 불폭풍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9월(2015)에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들었던 말에 어긋나는 말이었고 저는 그것을 도울 수 없어요. 저희는 저희가 듣고 싶은 사람, 혹은 저희에게 기름부음을 주는 느낌을 받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이 누구이든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예언의 선물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 잘못되었거나 진리에 대한 '베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일은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전부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예요.

(예수님) 그들이 나의 말들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도와줄 수 없고, 그것은 너도 마찬가지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들 자신의 일정에 맞추기로 결심했어. 왜냐하면 내가 사람의 가치가 있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클레어) 하지만 그들은 주님이 유대인의 시각표 대로 움직이고 있으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주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 주님께서 영예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그들의 모든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뜻이야?

(클레어) 와, 주님. 저를 묻으려고 하시나요?

(예수님) 아니.. 나는 내 존재 자체의 나야. 그리고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때의 표징을 주었지만 그것들은 온 우주가 지켜야할 법은 아니야. 나의 법은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뛰어넘지 않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예언에 따라 내가 깔끔하게 움직이는 나를 보고 싶어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사람에게만 뛰고 있어.

그리고 막 휩쓸려가려는 낙오자가 단지 한 명뿐이라도 최악의 운명을 겪는 그 한사람을 남겨둔 나의 마음은 아파.

(클레어) 그럼 본질적으로, 주님은 정말로 돌아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항상 거기에 한 명 더, 한 명 더, 또 더 한 명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예요!

(예수님) 본질적으로는 그래. 그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질문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거야. 우리는 끝이 다가오고 있으며 몇 주와 몇 달 안에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과 자신의 길을 간 사람들 사이의 분리가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나에게 적절한 시간이 될 때까지 구분선이 더 선명해지고, 더 또렷하고, 더 분명해질 거야.

나의 아버지는 결혼식 잔치에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진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천사들을 파견하고 있어.

만약 너희들이 이 유튜브 채널에서 내가 만든 모든 준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준 것에 순종하면 등잔에 기름이 풍부하고 그 때가 그들에게 즐거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들이 자기추구를 계속 한다면 그 때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비극적인 날이 될 거야.

(클레어) 하지만 주님, 그러한 기준으로 누가 포함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베냐민 같은 상당히 소박한 영혼이요?

(예수님) 클레어, 숨겨져 있는 사람의 마음은 아름다워. 그는 너의 모든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의 자격에는 충족해. 평범한 사랑과 기도의 길을 택한 단순한 사람.

사람들이 자유재량의 시간을 사용하여 빛나고 지식으로 가득한 '대단한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지만, 한 일이 부족하고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거야. 하지만 몇몇은 불을 통과하게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으며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각자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3장10~11절)

(예수님) 클레어, 그 기초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

(클레어) 사랑이요?

(예수님) 맞아, 사랑은 금이야. 진리는 은이야. 그리고 보석들은 자비로 행한 일들이야.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타 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여 여러분 자신도 바로 그런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자기를 속여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3장12~19절)

(예수님) 그리고 여기에 나무나 풀이나 짚이 있어.

‘성경에도 “하나님이 약삭빠른 자를 자기 궤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고

또 “주님은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헛된것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3장19~21절)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듯이 말할 수가 없어서 세속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하듯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어찌 육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3장1~4절)

(예수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날짜와 때를 다시 계산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고 공격하는 동안 누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벌거벗은 사람에게 옷을 줄 거야? 필라델피아 교회.. 내가 휴거를 약속한 유일한 교회야. 왜냐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웃 사랑인 금을 쌓아 올리고 있기 때문이야.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아, 너희들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상을 주러 왔다고 한 순간이라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나의 관심이 전혀 아니야. 나는 그 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지혜와 겸손으로 사용하고, 황금의 기초인 내가 사람들을 사기 위해 나의 몸의 희생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야. 싸우고, 논쟁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불에 기름이 있는 처녀들이 아니야.

내가 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 너희들 모두가 나와 결혼식 잔치에 가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야! 나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시간으로 무엇을 하는지, 너희들이 세상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봐. 특히 너희들의 주변사람들의 처한 상황에 무엇을 하는지 봐. 나는 너희들을 새로운 수준의 자기희생, 나눔과 주는 것으로 일 깨우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무지한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섬기고 진리를 가져오도록. 하지만 이웃사랑은 여전히 어느 누구의 마음이나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13장2~3절)

요점은 나는 내가 돌아올 때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 한 사람을 찾지 않을 거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찬양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나는 너희들의 마음에 나의 마음의 본질을 가득 채워.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져.

이것은 정말 단순해. 하지만 너희들의 불안감이 최신 뉴스에 길들여지게 만들었어.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찬양을 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나의 신성한 섭리에 너희들을 완전히 내려놓기를 바래.

작은 어린아이들처럼 되어라. 어린이들은 부모가 이미 그들을 위해 제공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래 놀이장에서 마음껏 놀아. 어린이들은 의문을 가지지 않아.

오 나의 신부들아, 어서! 나는 너희들을 돌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언제 너희들의 관심을 기울일 거야! 너희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과 너희들이 필요하게 될 것들에 지속적으로 집중함으로써 나의 일 그리고 너희들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와 나의 신실함에 집중하고 나를 찬양한다면 천국이 너희들에게 열릴 거야.

이제 가거라. 희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를 찾아라. 기도와 찬양뿐만 아니라 너희들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도 찾아라. 진실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